

一部 農村老人의 餘暇活動과 生活滿足度와의 關聯性

고흥군 신호보건진료소¹⁾, 조선의대 예방의학교실²⁾, 조선의대 정신과학교실³⁾, 서남의대 가정의학과⁴⁾
김재숙¹⁾, 박 종^{2)*}, 류소연²⁾, 이철갑³⁾, 김학렬³⁾, 김양옥⁴⁾

The Leisure Activity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for the Life by Aged Persons in a Rural Area

Jae-Soog Kim¹⁾, Jong Park²⁾, So-Yeon Ryu²⁾, Chui-Gab Lee³⁾, Hak-Ryul Kim³⁾, Yang-Ok Kim⁴⁾
*Shinho Community Health Post in Koheung-gun, Chollanamdo¹⁾,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²⁾,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Chosun University³⁾,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Seonam University⁴⁾*

= ABSTRACT =

This study was attempted to find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by the aged persons in a rural area.

The data was obtained by interview with questionnaire and the data from 209 persons aged over 65, residing in Dohwa-myeon and Podu-myeon, Koheung-kun, Chollanam-do were analysed.

The survey was carried out from Feb. 16th to May 3rd in 1998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survey showed that the major leisure activities were TV watching followed by talking with friends, club activities, taking a walk, visiting friends' or relatives' home and breeding domestic animals.

2. The types of leisure activities were classified into 8 patterns as active self-enlightenment, passive self-enlightenment, temporal amusements, passive self-activities, cozy introspective activities, friend oriented activities, family oriented activities and religious activities. Among the above 8 patterns active self-enlightenment type contributed most to the life satisfaction.

3. The major factors affecting leisure activities were sex, age, average income, religion and educational status. And the major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were sex, age, average income, educational status and a state of health.

In conclusion the more the aged persons participated in leisure activities, the better they felt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Leisure activity, Life satisfaction, Aged persons, Rural area

서 론

선진사회로 진행될수록 전체 인구중에서 차지하는 노인층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로 여겨진다. 그것은 특히 소득의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달,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 출산율의 저하 등과 같은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는 새삼스럽게 논의될 과제는 아니며, 이미 많은 보고서에서도 향후 2000년대에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접어들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995년 5.7%에서 2001년에는 7%, 2023년에는 14%로 배증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이같은 급격한 인구의 노령화는 서구 여러 나라가 장구한 세월에 걸쳐 대처해 온 노인문제를 우리나라의 경우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5).

또한 많은 비율의 노인은 강제적 또는 자발적으로 노동과 사회참여의 기회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가정의 역할면에서도 젊은이 주도의 핵가족화 사회로 변모함에 따라 가정에서의 역할마저 상실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여가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박재간과 김태현, 1986).

노인은 지역사회 및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 등 여러 가지 욕구를 갖고 있으나 노령이라는 이유로 해서 사회적으로 무시되거나 기타의 여건으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앞으로 더욱 심화될 고령화 사회에서 충족되지 못한 여가시간의 증대는 노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산업경제연구원(1985)이 조사한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 의식에서 젊을수록 여가의 가치를 중요하게 평가한다고 하여 여가의 비중이 생활에 있어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우리나라 노년층은 빈곤사회에서 청·장년기를 보낸 탓으로 여가를 죄의식시 하는 경향이 있고, 여가활동에의 사회화가 부족하며 또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여가의 의미나 여가활동에의 참여정도가 젊은 사람들과는 다르리라 생각된다.

노년기의 여가활동은 노인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하는데, 먼저 직업이 있는 노인은 여가활동을 통해 노동력 재생산의 수단이 되거나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킬 수 있고, 은퇴로 인해 사회의 공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난 노인의 경우는 여가활동이 비공식적인 사회참여 활동이 될 수 있으며 여가활동 참여를 통하여 역할 상실로 인한 고독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자기존중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생활 만족 및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의 여가를 어떻게 유용하게 보내는가는 노인의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때때로 당사자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족과 좌절을 빚어내는 경우도 있다(김태현, 1994). 이상을 볼 때, 고령화 사회에서 여가의 문제를 잘 해결하느냐 못하느냐는 노년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여가활동 유형을 분류하여 보며, 또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교신저자(E-mail: jpark@mail.chosun.ac.kr)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과 조사방법

전라남도 고흥군 도화면과 포두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2,848명을 모집단으로 하고 사회계층을 고려하여 임의추출한 220명중 응답이 불성실한 11명을 제외한 209명을 최종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1998년 2월 16일부터 3월 3일까지 면접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면접조사방법은 연구자와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절차에 대해 연구자가 사전에 교육한 훈련된 연구보조원 4명이 노인회관, 마을회관, 복지회관을 다니면서 질문지를 이용한 직접면접을 실시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로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는 사회·인구학적 변수, 여가활동 참여도 및 기타 여가생활,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총 5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여가활동 참여도

Tinsely의 3인(1985)이 분류한 여가활동 유형과 선행연구(이선미, 1992; 장인협과 최성재, 1987)들을 바탕으로 노인의 여가활동이라고 생각되는 23문항을 선정하였으며 각 문항은 리커트형 4점 척도로서 “전혀 안한다”에 1점, “가끔한다”에 2점, “자주한다”에 3점, “매우 자주한다”에 4점을 주었다. 여가활동 참여 점수는 23점에서 92점까지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여가활동을 많이 하는 것임을 나타낸다.

2) 생활만족도

최성재(1985)가 개발한 생활만족도 척도 20 문항은 과거 6문항, 현재 8문항, 미래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형 3점 척도로 구성하여 긍정적 문항(1, 2, 3, 7, 8, 9, 10, 15, 16, 17)은 “그렇다”에 2점, “잘 모르겠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0점, 부정적 문항(4, 5, 6, 11, 12, 13, 14, 18, 19, 20)은 반대로 “그렇다”에 0점, “잘 모르겠다”에 1점, “그렇지 않다”에 2점을 주었다. 생활만족도 점수는 0점에서 40점까지 분포하게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난다.

3. 분석방법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활동 참여 및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여가활동이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지를 보기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방법은 요인 수를 최소화하면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 할 때 사용하는 PC(principal component) 방식을, 요인의 회전방법은 Varimax방법을 택하였다. 요인 수의 결정은 고유치 값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으로서, 고유치값 1.0을 기준으로 하였다.

여가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에 대한 일반 특성별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고,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증 및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별 하위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보기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방법은 단순분석상에서 p-value 0.1 이상인 경우의 변수들을 선택하였으며, 단순분석에서 분류된 형태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나 변수 중 의료보장은 어느 보장에도 가입되지 않은 군을 기준으로 하여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인 경우를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표 1과 같다. 남자가 105명, 여자가 104명이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65세~69세가 29.7%, 70세~74세가 24.9%, 75세~79세가 25.8%, 80세 이상이 19.6%이었으며, 교육수준은 무학이 57.4%로 가장 많고, 서당 및 초등학교졸 이상이 30.2%, 중졸 이상이 12.4%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는 남자의 86.7%가 유배우자인 반면, 여자의 62.5%가 무배우자인 경우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수명이 길고 남자들은 비록 부인과 사별하더라도 독신으로 지내기도 하는 재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동거형태를 보면 남자의 경우 부부동거가 67.6%로 가장 많고,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21.9%, 독거는 8.6%로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 독거가 36.5%로 가장 많고, 부부동거가

30.7%,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27.9%로 나타났다. 주관적 평가에 의한 건강상태는 남자는 건강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아 59.1%, 질병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31.4%였고, 여자는 질병이 있거나 건강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우가 76.9%로 나타나 여자에게 불건강에서 오는 문제가 많을 수 있음을 유추케한다. 종교상태를 보게 되면 남자의 경우 종교 없음이 60%이고, 여자는 종교 있음이 55.8%로 나타나 여자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약간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월 평균 수입을 보면 남자는 10만원 이상이 58.1%이고, 여자는 10만원 이하가 72.1%로 나타났다.

2.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단위:명(%)

특 성		남 자	여 자	전 체
연령	65-69	31(29.5)	31(29.8)	63(29.7)
	70-74	30(28.6)	22(21.2)	52(24.9)
	75-79	24(22.9)	30(28.9)	54(25.8)
	80-	20(19.1)	21(20.2)	41(19.6)
교육수준	무학	34(32.4)	86(82.7)	120(57.4)
	서당, 초등	47(44.8)	16(15.4)	63(30.2)
	중등이상	24(22.9)	2(2.0)	26(12.4)
배우자유무	유	91(86.7)	39(37.5)	130(62.0)
	무	14(13.3)	65(62.5)	79(37.8)
동거형태	부부동거	71(67.6)	32(30.7)	103(49.3)
	자녀와동거	23(21.9)	29(27.9)	52(24.9)
	독거	9(8.6)	38(36.5)	47(22.5)
	기타	2(1.0)	5(2.4)	7(3.4)
건강상태	건강하다	62(59.1)	24(23.1)	86(41.2)
	병은 없으나 건강하지 않다	10(9.5)	11(10.5)	21(10.1)
	질병이 있다	33(31.4)	69(66.4)	102(48.8)
종교	유	42(40.0)	58(55.8)	100(47.9)
	무	63(60.0)	46(44.2)	109(52.2)
의료보장형태	의료보험	89(84.8)	83(79.8)	172(82.3)
	의료보호	13(12.4)	18(17.3)	31(14.8)
	없음	3(2.9)	3(2.9)	6(2.9)
월평균수입	10만원미만	44(41.9)	75(72.1)	119(56.9)
	10만원이상	61(58.1)	29(27.9)	90(43.1)
합 계		105(100.0)	104(100.0)	209(100.0)

1) 여가활동 종목의 참여도 및 순위

여가활동의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여가활동 내용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여가생활을 묻는 문항에서 “자주 한다”와 “매우 자주 한다”로 답했을 경우 여가활동에의 참여로 해석하였으며, 남녀 합계에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TV시청, 친구들과 대화, 노인모임활동, 걷기 및 산책, 친구 및 친척집 방문, 동물기르기, 화

투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게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교양강좌, 돈내기 놀음, 동네일 활동, 서예 및 묵화, 바둑, 자녀집 방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갤럽 조사연구소(1984), 서병숙, 오경숙(1989), 이선미(1991), 이현숙(1994), 권규식(1973), 김영모(1990)의 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TV 시청이 우리나라 노인들의 중요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표 2 여가활동 종목의 참여도 및 순위

종목	남		여		계	
	인원수(%)	순위	인원수(%)	순위	인원수(%)	순위
화투	48(45.7)	7	16(15.4)	9	64(30.6)	7
장기	38(36.2)	9	1(1.0)	16	39(18.7)	13
바둑	21(20.0)	15	0(0)	18	21(5)	16
친구들과 대화	100(95.2)	2	95(91.4)	2	195(9.3)	2
혼자하는 운동	33(31.4)	11	8(7.7)	14	41(19.6)	12
단체로하는 운동	23(21.9)	14	10(9.6)	11	33(15.8)	14
친구 및 친척집 방문	32(30.5)	12	51(49.0)	4	83(39.7)	5
자녀집 방문	12(11.4)	17	9(8.7)	12	21(10.0)	15
돈내기 놀음	8(7.6)	18	1(1.0)	16	9(4.3)	19
동네일 활동	7(6.7)	19	4(3.9)	15	11(5.3)	18
노인모임 활동	84(80.0)	3	61(58.7)	3	145(69.4)	3
걷기 및 산책	65(61.9)	4	47(45.2)	5	112(53.6)	4
TV시청	104(99.0)	1	100(96.2)	1	204(97.6)	1
라디오 청취	50(47.6)	6	9(8.7)	12	59(28.2)	9
식물재배	36(34.3)	10	21(20.2)	8	57(27.3)	10
동물기르기	39(37.1)	8	37(35.6)	6	76(36.4)	6
신문 및 잡지보기	52(49.5)	5	11(10.6)	10	63(30.0)	8
교양강좌	4(3.8)	20	0(0)	18	4(1.9)	20
서예 및 묵화	17(16.2)	16	0(0)	18	17(8.1)	17
종교활동	25(23.8)	13	27(26.0)	7	52(24.9)	11

2)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 전체 항목의 평균은 1.05로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의 생활만족도의 전체 항목의 평균은 1.11 인데 반해, 여자의 생활만족도의 전체 항목의 평균은 0.99 로 나타나 남자에 있어서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나이를 먹어 가면서 보니 세상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게 느껴진다”가 1.49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지난 평생을 돌아 볼 때 후회할 일이 별로 없다”가 1.33, “요즘음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이다”가 1.33,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한다”는 1.32로서

표 3. 각 문항별 생활만족도

문	항	평균	표준편차
1.	지난 평생을 돌아볼 때 후회할 일이 별로 없다	1.33	.92
2.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었다.	1.22	.94
3.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다.	1.18	.92
4.	나는 내동갑내기들보다 어리석은 판단을 많이 내린편이다.	1.25	.91
5.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이루어놓은게 별로 없다.	.57	.89
6.	나의 지난평생은 힘들고 괴로워서 생각하기도 싫다.	.65	.92
7.	요즈음 나는 살맛이 난다.	1.17	.95
8.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 세상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느껴진다.	1.49	.84
9.	요즈음이 내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때이다.	1.33	.90
10.	나는 현재의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1.32	.92
11.	매일매일의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다.	.95	.99
12.	요즈음 나는 매사가 짜증스럽고 귀찮다.	1.00	.99
13.	요즈음 기쁜일보다는 슬픈일이 더 많다.	1.11	.96
14.	요즈음 화나는 일만 점점 더 많아진다.	1.22	.96
15.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다.	1.03	.98
16.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다.	1.07	.96
17.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것 같다.	1.34	.89
18.	앞으로 내가 할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30	.70
19.	나는 가치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	.49	.84
20.	더이상 나이를 먹는 것보다 죽는편이 낫다.	.95	.98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노인들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결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앞으로 내가 할만한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는 가장 낮은 0.30의 평균값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나는 가치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다”가 0.49, “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 보면 이루어 놓은게 별로 없다”가 0.57, “나의 지난 평생은 힘들고 괴로워서 생각하기도 싫다”가 0.65로서 낮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어, 대부분의 노인들이 미래의 생활 뿐만 아니라 과거의 생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여가활동의 분류

노인의 여가활동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요인 I 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발전시키고 개발하려는 여가활동으로서 적극적 자기개발 활동이라고 칭하였다. 여기에 속하는 활동은 혼자 하는 운동, 단체로 하는 운동, 동네일 활동, 교양강좌, 서예 및 목화 등의 5문항이 속한다.

요인 II는 자기를 개발하는 활동이기는 하나 소일의 의미가 있으므로 소극적 자기개발 활동이라고 칭했다. 여기에는 장기, 바둑, 신문 및 잡자보기, 라디오 청취 등의 4문항이 속한다.

요인 III은 화투, 돈내기 놀음 등 2문항을 투기성 활동이라 칭하였다.

요인 IV는 돈이 없어도 건강이 나빠도 폐쇄된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인 TV시청을 폐쇄형 활동이라고 칭하였다.

요인 V는 편안한 휴식 및 기분전환 등의

표 4 여가활동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요인 VI	요인 VII	요인 VIII
혼자하는 운동	.69	.00	.20	-.02	.06	.05	-.06	-.04
단체로하는 운동	.67	.07	-.09	-.12	.03	.07	.31	.26
동네일 활동	.33	.15	.24	-.35	-.31	-.03	.25	-.35
교양강좌	.67	.16	-.01	.10	.03	.02	.03	.07
서예 및 묵화	.72	.29	-.12	.05	.00	.04	-.03	-.15
장기	.14	.77	.08	.15	-.06	.14	-.08	-.06
바둑	.13	.84	-.00	-.05	.04	.05	-.04	.09
신문 잡지 보기	.42	.53	.00	-.16	.12	-.01	.21	.20
라디오 청취	.23	.41	.36	-.32	.10	-.16	.10	-.19
화투	-.24	.24	.69	.05	.12	.18	-.09	-.11
돈내기 놀음	.13	-.10	.81	.02	-.06	.04	.05	.20
TV시청	.13	-.03	.18	.71	.12	-.09	-.09	-.28
식물재배	.14	.18	-.09	-.24	.64	.05	.13	.18
동물기르기	.02	-.06	.11	.09	.78	-.014	-.02	-.02
걷기 및 산책	.20	-.07	.10	-.62	.21	-.00	-.18	-.05
친구들과 대화	.08	-.04	.05	.07	-.06	.87	.07	.02
노인모임 활동	.04	.27	.11	-.18	.12	.64	-.14	-.12
친구 및 친척집 방문	-.11	-.00	-.0	-.12	.32	.06	.70	-.25
자녀집 방문	.20	-.04	.03	.16	-.14	-.09	.67	.17
종교활동	.08	.07	.11	-.13	.07	-.08	.00	.78
고유치	3.51	1.80	1.50	1.32	1.78	1.16	1.10	1.03
전체변량	17.6	9.01	7.5	6.6	5.9	5.8	5.5	5.2

활동을 말하며 식물재배, 동물기르기, 걷기 및 산책 등의 3문항이 여기에 속하며 안락한 고독활동이라고 칭하였다.

요인 VI는 친구들과 대화, 노인모임 활동 등 2문항이 모였으므로 우인중심 활동이라 하였다.

요인 VII은 친구 및 친척집 방문, 자녀집 방문 등 2문항이 모였으므로 가족중심 활동이라 하였다.

요인 VIII은 종교활동 만이 있으므로 종교 활동이라 하였다.

이상과 같이 8개 요인으로 설명되는 아이겐

값과 전체 변량은 적극적 자기개발 활동이 3.51로서 17.6%, 소극적 자기개발 활동이 1.80으로서 9.0%, 투기성 활동이 1.50으로서 7.5%, 폐쇄형 활동이 1.32로서 6.6%, 안락한 고독활동이 1.78로서 5.9%, 우인중심 활동이 1.16으로서 5.8%, 가족중심 활동이 1.10으로서 5.5%, 종교활동이 1.03으로서 5.2% 순서로 나타났다. 이상 8개 요인에 대한 누적 변량은 63.1%이다.

이상의 요인 분석 결과 나타난 8개 요인은 선행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폐쇄형 활동"이 여가활동 유형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만족도와와의 상관관계

를 표 5에서 살펴보면, 생활만족도는 적극적 자기개발 활동과 안락한 고독활동과는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이러한 여가활동을 많이 할 수록 생활만족도는 높은 반면, 폐쇄형 활동과는 부적의 관계를 갖고 있어서 이러한 여가활동을 많이 할 수록 생활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돈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건강이 나빠도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인 대중매

체에 일방적으로 이끌리는 매우 소극적이고도 폐쇄적인 활동인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가활동 유형별 생활만족도 순위를 보면, ① 적극적 자기개발 활동, ② 안락한 고독 활동, ③ 가족중심 활동, ④ 일시적 유희, ⑤ 소극적 자기개발 활동 등의 순으로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 여가활동 유형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

여가활동유형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요인 V	요인 VI	요인 VII	요인 VIII
생활만족도	.25***	.07	.07	-.16*	.13*	.00	.09	.04

*:P<.05, **:p<.01, ***:p<.001

4. 여가활동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여가활동을 택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는 성,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형태, 건강상태, 종교상태, 의료보장형태, 월 평균수입 등이고 여가활동은 점수의 총합으로 하였다.

1) 성

성에 따른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6, 표 7). 여가점수 총점은 남자가 462점, 여자가 378점이고, 생활만족도 점수는 남자가 222점, 여자가 19.7점으로 남자가 여가활동도 더 많이 참여하고 생활만족도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김명자(1982)의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다는 결과(Liang:1982, 김태현:1986)도 있으므로, 성별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는 직접적인 상관 관계라기 보다는 성별에 따른 건강상태와 경제적 차

이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연령

연령에 따른 여가활동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6, 표 7). 이는 연령에 따라 여가활동의 유형과 내용에 차이를 보인다는 Gordon 등(1976), Trela(1976), Cutler(1979)의 선행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생활만족도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Larson(1978), 이선미(1991)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유무에 따른 여가활동 및 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배우자 유무에 따라 여가활동에는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생활만족도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9). 이는 선행 연구에서 Larson(1978), Kelly 등(1986), 이효재의 2인(1979), 김명자(1982), 홍순혜(198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배우자가 있음에 따라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비교적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 상실 자체에 의해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기 보다는 상실과 수반되는 문제, 특

히 경제적 박탈감에 의해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4) 월 평균 수입

월 평균 수입에 따른 여가활동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월 평균 수입에 따라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표 6, 표 7). 이러한 결과는 노인들이 자신이 원하는 여가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로 "돈이 없어서"라는 Petterson(1973), Gorden(1976), 이효재와 2인(1979), 박재간(1984)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5) 종교유무

종교에 따라 여가활동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한국갤럽조사 연구소(1984), 이효재(1979), 서병숙(1990), 이선미(1991)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으나,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4), 김명자(1982), 김태현(1986)의 종교가 있는 노인이 종교가 없는 노인보다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6)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고, 또 생활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7). 이것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이 다양하다는 Havighurst(1974)와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 활동에의 참여율이 높다는 박유식(1985)의 연구 결과와 일치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김태현(1986), Medley(1976), 김명자(1982), 이효재 등(1979), 김재인(198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McClelland(1982)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생활 수준도 높아져 자신의 실제 수준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갖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상을 볼 때 교육수준은 여가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은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 건강상태

건강상태에 따라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가활동에는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6, 표 7). 이는 선행연구에서 Liang(1982), 주관적 건강평가가 생활만족도에 더 중요한 결정 인자라는 Medley(1976), 김태현(1986), 이선미(1991)의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생활만족도와 건강상태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8) 동거형태와 의료보장 형태

동거형태에 따른 여가활동 및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동거형태에 따라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의료보장 형태에 따른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의료보장 형태에 따라 여가활동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생활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의료보험보다는 의료보호 보장형태에서 생활만족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5. 여가활동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여가활동 및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독립적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여가활동

여가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 교육수준, 월 평균 수입, 자녀와 동거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남자 이면서, 교육수준이 높으면서, 수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노인 일수록 여가활동을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 9개의 독립변수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설명력은 45.2%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회귀방정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여가활동 참여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별 여가활동점수

단위:점수(표준편차)

특 성		남 자	여 자	전 체
연령	65-69	45.1(8.6)	34.6(5.3)	39.9(7.0)
	70-74	44.0(8.1)	36.9(4.7)	40.5(6.4)
	75-79	41.7(6.6)	35.1(5.8)	38.4(6.2)
	80-	39.6(6.2)	32.4(4.1)	36.0(5.2)
배우자유무	유	32.8(7.9)	35.2(5.1)	39.0(6.5)
	무	43.9(7.5)	34.5(5.3)	39.2(6.4)
월평균수입	10만원미만	39.7(6.8)***	34.0(4.6)*	36.9(5.7)
	10만원이상	45.3(7.7)	36.8(6.2)	41.1(7.0)
종교	유	46.6(7.4)***	35.4(5.6)*	41.0(6.5)
	무	40.5(7.1)	34.0(4.7)*	37.3(5.9)
교육수준	무학	38.4(6.3)***	34.1(4.9)***	36.3(5.6)
	서당,초등	42.3(6.6)	38.4(5.6)	40.4(6.1)
	중등이상	50.5(6.4)	36.5(7.8)	43.5(7.1)
동거형태	부부동거	42.4(8.0)	35.5(5.1)	39.0(6.6)
	자녀와동거	44.5(6.7)	35.3(5.1)	39.9(5.9)
	녹거	44.8(9.2)	33.6(5.5)	39.2(7.4)
	기타	37.5(3.5)	36.0(3.8)	36.8(3.7)
건강상태	건강하다	44.1(7.2)	35.4(5.5)	39.8(6.4)
	질병은 모르나 건강하지 않다	40.3(5.7)	32.8(5.8)	36.6(5.8)
	질병이 있다	41.7(9.2)	34.9(5.0)	38.2(7.1)
의료보장형태	의료보험	43.4(7.9)	35.3(5.4)	39.4(6.7)
	의료보호	38.7(6.4)	33.0(3.9)	35.9(5.2)
	없음	47.0(4.0)	31.3(2.1)	39.2(3.1)
합 계		46.2(8.1)	37.8(5.3)	42.0(6.7)

tested by T-test, ANOVA, *p<.05, **p<.01, ***p<.001

면 표 8과 같다.

2)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상태, 성, 월 평균 수입, 여가 활동 순으로 나타나서 건강상태가 좋으며, 남자이며, 월 평균 수입이 많고, 여가활동에 많이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 9개의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20.4%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한 김종숙의 연구에서 가족관계,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활동에의 참여도의 순으로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과 김태현, 서승희의 “노인의 주거환경과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에서, 이

우복의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교육참여, 건강상태, 생활수준, 사회단체 참여수의 순으로 영향을 미친것 중 부분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다.

회귀 방정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표9와 같다.

요 약

본 연구는 농촌 노인의 여가활동 실태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 이들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몇 가지로 분류되며, 여가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성별 생활만족도

단위: 점수(표준편차)

특 성		남 자	여 자	계
연령	65-69	24.5(8.2)*	20.9(9.2)*	20.7(8.7)
	70-74	23.9(7.1)	23.1(8.7)	23.5(7.9)
	75-79	20.0(9.6)	18.8(8.0)	19.4(8.8)
	80-	18.8(9.1)	15.7(7.9)	17.3(8.5)
배우자유무	유	22.5(8.7)	22.1(8.5)*	22.3(8.6)
	무	20.1(7.9)	18.3(8.6)	19.2(8.3)
월평균수입	10만원미만	19.0(9.3)***	18.4(8.0)**	18.7(8.7)
	10만원이상	24.5(7.3)	23.1(9.8)	23.8(8.6)
종교	유	23.3(9.2)	20.0(8.8)	21.7(9.0)
	무	21.5(8.3)	19.4(8.8)	20.5(8.6)
교육수준	무학	18.7(9.7)***	18.6(8.6)**	18.7(9.2)
	서당초등	22.4(7.7)	25.0(8.3)	23.7(8.0)
	중등이상	26.9(6.4)	24.5(3.5)	25.7(5.0)
	대학이상	22.7(8.7)	21.0(8.7)	21.9(8.7)
동거형태	부부동거	20.7(9.7)	19.8(8.8)	20.3(9.3)
	자녀와동거	21.8(5.9)	18.7(8.8)	20.3(7.4)
	독거	24.0(1.4)	19.0(10.3)	21.5(5.9)
	기타	24.4(7.7)**	23.4(6.5)*	23.9(7.1)
건강상태	건강하다	22.2(9.1)	19.3(9.8)	20.8(9.5)
	병은 없으나 건강하지 않다	18.2(9.0)	18.5(9.0)	18.4(9.0)
	질병이 있다	22.8(8.2)*	20.0(8.5)	21.4(8.4)
의료보장형태	의료보험	16.7(10.1)	17.4(9.6)	17.1(9.9)
	의료보호	29.3(4.2)	27.0(6.2)	28.2(5.2)
	없음			
합 계		22.2(8.6)	19.7(8.7)	21.0(8.7)

tested by T-test, ANOVA, *p<.05, **p<.01, ***p<.001

표 8. 여가활동 참여에 관련된 요인

변수명	β	표준오차
연령	-0.048	0.423
성	-5.042***	1.073
배우자유무	1.899	1.570
월평균수입	2.037*	0.933
교육수준	4.591***	0.753
건강상태	0.243	0.476
의료보험	1.637	2.415
의료보호	0.284	2.636
자녀와동거	2.477*	1.285
절편	31.794	3.952
$R^2 : 0.452$		

*p<.05, **p<.01, ***p<.001

표 9.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요인

변수명	β	표준오차
연령	-0.661	0.553
성	3.226*	1.532
배우자유무	-2.317	1.371
월평균수입	2.606*	1.273
교육수준	1.003	1.109
건강상태	-2.083***	0.640
의료보험	-6.442*	3.272
의료보호	-7.731*	3.559
여가활동	0.181*	0.095
절편	19.329	6.202

$R^2 : 0.204$

* $p < .05$, ** $p < .01$, *** $p < .001$

활동 참여도와 생활만족도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고흥군 도화면과 포두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220명을 대상으로 1998년 2월 16일부터 3월 3일까지 직접 면접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 내용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참여하는 여가활동은 TV 시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친구들과 대화, 노인모임 활동, 걷기 및 산책, 친구 및 친척집 방문, 동물기르기 등의 순이었다.

둘째, 노인의 여가활동 유형은 적극적 자기개발 활동, 소극적 자기개발 활동, 투기성 활동, 폐쇄형 활동, 안락한 고독활동, 우인증심 활동, 가족중심 활동, 종교활동의 8개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성, 연령, 월평균수입, 종교, 교육수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고($P < 0.05$), 생활만족도와는 성, 연령, 월평균 수입, 교육수준, 건강상태 등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넷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건강상태, 성, 월평균 수입, 여가활

동, 의료보장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P < 0.05$).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상태가 생활만족도에 가장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만족스러운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건강상태를 증진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규칙적인 생활 체육을 장려하고, 노인전문 병원을 제도화 시키며, 가정 간호사업을 효율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월 평균 수입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득 보장인 연금제도의 정착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암시해 준다. 본 연구에서도 의료보호 대상자가 의료보험 대상자보다 생활만족도가 높았음을 볼 때,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은 생활만족도의 중요한 요인임을 유추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인들에게 노인들의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역할로는 상 담그기, 아기 돌보기, 김치담기, 봉투 만들기 등이 있을 수 있다.

끝으로 여가활동 참여를 많이 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위해 지역 주민과 더불어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다. 또한 활용 가능한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노인의 적극적인 여가 활동 참여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인용문헌

1. 권규식. 핵가족화와 노인문제. 성곡논총 1973:4:637.
2. 김영모. 한국노인 복지정책 연구.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1990, 쪽 97-101
3. 김명자.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82:20(3):45-54
4. 김재인. 후기성인을 위한 사회교육과 생활만족도 상관연구. 한국노년학회 1987:139-161
5. 김태현. 노년학. 서울, 교문사, 1994 쪽 264
6. 김태현.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연구. 성신연구논문집 1986:23:182-199
7. 박재간, 김태현. 현대사회에서의 노년기 여가행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1986:6:27-38
8. 이선미. 중노년기 여가활동 유형과 인생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9. 장인협, 최성재.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쪽 245-246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화 사회를 향한 노인복지의 실천과제, 1995
11.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우리나라 국민의 여가의식, 1985
12. Culter, Stephen J. Membership in Different types of voluntary associa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he Gerontologist 1976:16(4):336-339
13. Gordon C, CM Gaitz, J Scott. Leisure and Lives : Personal Expressivity across the Life Span.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 ed. R. H. Binstock and E. Shanas. New York : D.van nostrand, 1976. pp. 311
14. Kelly JR, Steinkamp MW. Later Life Leisure: How they play in peoria. The Gerontologist. 1986:26(5):531-537
15. Larson R. Thirty years of research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lder the Americans. Journal of Gerontology 1978:33(1):109
16. Liang J. Sex Differences i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1982:36(1):103-107
17. McClelland KA. Self-Conception and Life Satisfaction. Integration Aged Subculture and Activity Theory. Journal of Gerontology 1982:37(6):728
18. Medley ML.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65 years and older. Journal of Gerontology 1976:30(4):448-449
19. Petterson James. Leisure without Guilt. VL Boyack (ed). Time Our Hand. Andrew Gerontological Center. University of South California, 1973, pp19-27
20. Trela James E. Social Class and Association Membership: An Analysis of Age-guarded and Non-age-guarded Voluntary Participation. Journal of Gerontology 1976:31(2):198-203